

## 2) 동대암(東臺岩)

골장항을 북동쪽으로 에워싸고 있는 암석으로 이뤄진 봉우리이다. 노송과 섬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후릿그물 작업을 위해 망잡이가 고기떼의 이동을 살펴보는 곳이어서 망산이라고 부른다. 동대암 아래 백사장과 연결한 곳의 동굴은 성황당이 조성돼 있다.

# 제2절 봉평2리(鳳坪二里)[속명: 샛들, 박실(朴實)]

##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 연안으로 7번 국도가 지나가고, 남쪽은 솔치봉 주맥(主脈)이 동쪽에 역용맥(逆龍脈)으로 뻗으면서 마을 앞의 남산(南山)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중앙으로 초평천이 흐르고 있다. 서쪽은 태백산맥의 샷갓재(笠峰嶺) 지맥(支脈)이 뻗어 솔치봉과 소백산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후정3·4리와 접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1988년 4월, 봉평들에서 발굴돼 국보 제242호로 지정된 울진봉평신라비와 울진지역 비석군을 보관, 전시하는 봉평신라비전시관이 조성되어 있다.

## 2. 마을의 역사

자연마을로 샛들과 박실이 있다.

### 1) 박실(朴實)

1504년(연산군 10)경에 영해 박씨(寧海朴氏)가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았다 하여 박실(朴實) 또는 박곡(朴谷)이라 부른다.

### 2) 샛들(鳳坪)

1590년경(선조 23) 봉성(鳳城)에서 살던 영양인(英陽人) 김계근(金啓瑾)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동해 연변(沿邊) 건좌(乾坐)의 숲 사이에 있는 작은 못(池)에 가면 좋은 징조(徵兆)가 나타나리라 하였다. 그 후 꿈에 나타난 곳을 찾아가 보니 바위 밑에서 찬란한 빛의 봉황(鳳凰)이 물을 먹고 산으로 날아갔다. 이 산을 봉황산(鳳凰山, 富興峯)이라 하고 이 못을 봉지(鳳池)라 하였다. 또한, 봉황새가 있던 들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샛들(鳳坪)이라 하였다. 그 후, 1714년(숙종 10)에 담양인(潭陽人) 전백현(田伯賢)이 입주하면서 봉평을 초평(草坪)

이라고도 하였는데, 일설은 1901년에 울진 현령 김좌봉(金佐鳳)이 봉평의 봉(鳳)자가 자기의 이름자와 같다 하여 봉(鳳)자를 초(草)자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1988년 1월에 발견되어 같은 해 11월에 국보 제242호로 지정된 ‘울진봉평신라비’가 있으며, 이는 2011년 6월에 조성, 개관한 봉평신라비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 3. 가구 분포

총 203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영양 김씨(英陽金氏), 거제 반씨(巨濟潘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 4. 마을의 특징

#### 1) 고분(古墳)

신라비가 출토된 곳과 인접한 음달마는 고분 지역으로 지금도 가끔 부장품(副葬品)들이 출토(出土)되고 있다. 1988년 4월 16일, 이 마을 김형규(金炯奎) 집에서 상수도수리공사 중 토기(土器) 4점, 귀고리 3점, 토기 조각 등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 계통(系統)의 고분으로 확인되었다.

#### 2) 반정재(泮亭齋)

반정재는 담양 전씨(田氏) 문중의 재실이며, 문명공(文明公) 야은(桀隱) 전녹생(田祿生), 문혜공(文惠公) 뇌은(耑隱) 전귀생(田貴生), 문원공(文元公) 경은(耕隱) 전조생(田祖生), 회정(晦亭) 전자수(田子壽)의 네 선생을 모시는 사우인 경문사(景文祠)를 품고 있다. 회정(晦亭) 전자수(田子壽)는 경은(耕隱) 전조생(田祖生)의 후손으로 담양 전씨 울진 입향조이며, 1390년 강원도 안검사(按兼使)가 되어 평해 지방을 순시 중 조선 개국 소식을 접하고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벼슬을 돌려주고 후포 삼율리 ‘울현’에 정착해 양진재(養眞齋)를 짓고 술과 시와 노래로 망국의 한을 달랬다. 월송정과 관어대에 대한 품격 높은 시가 전한다.

#### 3) 봉평해수욕장

봉평마을 앞에 펼쳐진 송림을 중심으로 발달한 해수욕장이다. 최근 해안침식 현상으로 백사장과 송림 일부가 크게 훼손되었다. 주변에 펜션과 모텔, 민박, 식당 등이 다수 구성되어 있다.

#### 4) 성황당(城隍堂)

노인회에서 삼헌관(三獻官)을 선정하여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자(子)시에 간절한 제물로 제사를 지낸다. 다음 날 아침에는 동회를 한다. 그런데 양지마와 음지마 사람들은 울창한 수목으로 서로 바라볼 수 없었으나, 하루는 연기가 올라감을 보고 양 곳의 주민들이 달려가 서로 마주친 곳에 성황당을 모셨는데 때는 1590년경으로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1959년에 목조 성황당으로 개축하였다.

#### 5) 옥계서원지(玉溪書院址)

옥계서원은 울진읍 읍내리 옥계동에서 1777년(정조 1)에 봉평리에 이건(移建)하였다가, 1832년(순조 32)에 화성 3리 용장으로 옮겼다가, 1876년에 고목리 금성동에 이건하였다.

#### 6) 울진봉평신라비

죽변면 봉평리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울령비이며, 국보 제242호이다. 1988년 1월경 이곳 봉평들에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1988년 11월 4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의 높이는 204cm, 글자가 새겨진 면의 윗너비 32cm, 가운데 너비 36cm, 밑너비 54.5cm로 전체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不整形)이다. 비문의 구성은 전체 10행으로 행마다 글자 수가 달라 1행 31자[하부 일부가 파손되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렇게 추정됨, 2행 42자, 3행 41자, 4행 42자, 5행 25자, 6행 46자, 7행 45자, 8행 44자, 9행 40자, 10행 42자로 전체 글자 수는 모두 398자로 추정된다. 524년(법흥왕 11) 울진지역에서 신라에 대한 모종의 반란 사태가 발생하여 경주와 삼척의 대군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책임자에게 장 60대와 100대를 치고, 얼룩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6월에 조성, 개관한 봉평신라비전시관에 보존되어 있다.

### 제3절 죽변3리(竹邊三里)[속명 : 봉개, 봉수동(烽岫洞)]

####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망망대해인 동해를 바라보고 있고, 남쪽은 죽변 1·4리, 서쪽으로는 7번 국도를 경계로 죽변5리가 있으며, 북쪽은 후정1리와 인접하고 있다. 죽변곶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죽진산(竹津山)이 있으며, 사계절 강한 바람이 많으므로 숲은